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11월 위령성월

묘지에서 연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롤로 신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음악회 후원금에 감사☺

*음악회 후원금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주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오랜세월 역술하게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인재소자의 사회 복귀 지원, 사회에서 소외된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개인과 단체에 기부됩니다.

▶꾸리아 월례회, 연차 총 친목회

대상: 전 레지오 단원과 협조 단원

일시 및 장소 : 11/19(주일) 11시, 2층 C.f.room

행사: 12시 다미안홀에서 식사후 영화시청 '두교황'

*단원들간에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브루클린 노숙자 보호소에 의류 기부

드라이클리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수거되지 않은 드라이클리닝 의류가 있으면 노숙자 보호소에 기부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간 기부해주신 분들 덕분에, 노숙자 보호소 거주인들이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면접과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세금공제용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문의: 347-834-5784 또는 347-247-4139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오늘 12:40 3A	Sr.효주
목요일반	매주 목, 10시 3A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주보발행

청년들의 미사와 교회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청년주보를 발행합니다.

▶청년, Thanksgiving Day 파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즐거운 프렌즈 기빙

일시: 11/23(목) 6:00pm~ 8:30pm, 다미안홀

대상: 모든 청년, 참가비: \$20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본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청년, 새신자 등록



새신자분들 환영합니다.

꼭 큐알코드에 접속하셔서 등록하세요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시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19	조소연 미르나	김규현 프란치스코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데레사 김수현실비아
11/26	정유진 콘솔시아	이태주 레오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한서희데레사 김수현실비아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요약)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토빗 4,7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증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토빗이 자선을 베푼 다음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선행을 하는데 벌이 따르다니 무슨 운명의 아이러니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지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시련의 시기에 토빗은 자신의 가난을 발견하고는 가난한 다른 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난을 직접 느꼈기에 실제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라는 토빗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여 봅시다. 모든 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피부색도, 사회 계층도, 출신도 무관합니다. 나 자신이 가난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울뿐인 안경을 지키려는 무관심과 빠른 핑계를 떨쳐버리고 모든 가난한 이와 모든 형태의 가난을 알아보라고 부름받습니다. 저는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 휘말린 사람들, 특히 평온한 현재와 품위있는 미래를 빼앗긴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심각한 괴로움인 이러한 형태의 가난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빈곤의 실태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두드러지는 가난의 형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낙오된 패배자’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문화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자살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치명적 영향에 대항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너그러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돕시다.

가난한 이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수사적 과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통계와 숫자라는 수준에 머물러는 교활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는 인격체로서 얼굴, 이야기,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지닌 우리의 형제자매이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저 재빨리 내미는 도움의 손길 이상입니다. 이는 가난이 훼손한 올바른 상호 인격적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일”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자비와 애덕의 유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복음의 현실주의로 특징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지 남아도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식별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희망과 열망이 아닌 우리 형제자매의 진정한 필요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류애, 사랑에 열려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올해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추고 즐겁게 하여야 하는 애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인 이 세상에서는 모든이가 애덕의 빛을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빛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데레사 성녀의 굳건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이며 신적인 면모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기를 빕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